

인천정유, 7월 자일렌 40만톤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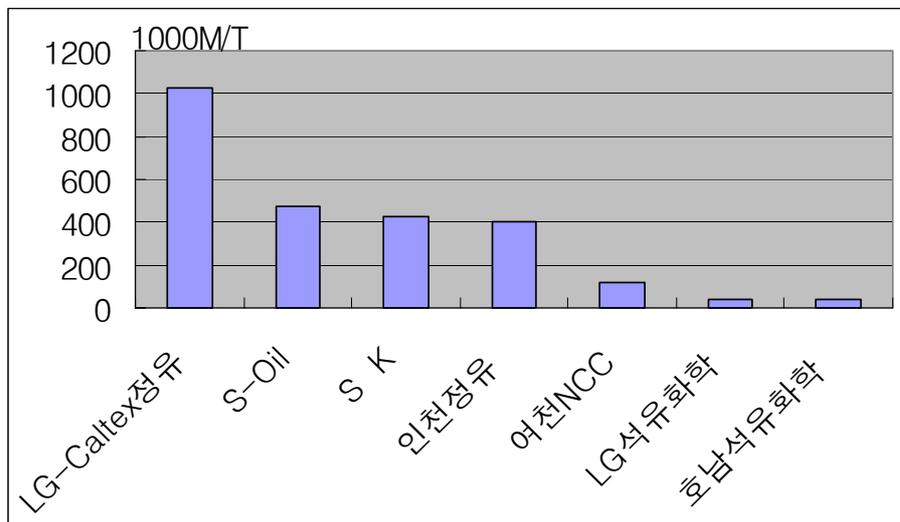
수급타이트 다소나마 완화 기대 ... Sinochem 매각협상 8월 완료 전망

인천정유가 40일간의 Xylene 플랜트 정기보수를 끝내고 7월5일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심각한 BTX 수급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정유는 당초 유틸리티를 보완해 생산능력의 10% 정도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가동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국내 Xylene 생산능력은 LG-Caltex정유 103만톤, S-Oil 47만3000톤, SK 42만300톤, 인천정유 40만톤 등 253만3000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Xylene 생산능력(2004)



한편, 인천정유는 2001년 8월 부도가 난 후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Sinochem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8월쯤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Sinochem은 이미 이행보증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유의 정제능력은 한해 1400만톤으로 국내 5대 정유기업 중 가장 작지만 중국 최대의 정유기업인 전하이정유화학보다 불과 200만톤 적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7/05>